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MT 등 힐링 여행지로 인기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이 광주 근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힐링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휴양림에 숙박객 11만여 명,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연수 및 세미나도 37건이

진행되는 등 단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996년 2월 21일 개장했으며, 구역 면적은 160만㎡, 1일 최대 수용인원은 3,000명, 최적 인원은 1,500명이다. 160ha 규모의 방대한 숲속에 피톤치드를

##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명소 160ha 방대한 숲속 피톤치드 등 살아있는 생태 여행지

쏟아내는 편백나무, 100년 수명을 자랑하는 아름다리 고로쇠나무, 굴참나무 등이 식재돼 있으며, 다람쥐, 청솔모, 수달, 담비,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 대흥란 등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살아있는 생태 여행지라고 불린다. 휴양림에는 48개의 숙박시설과 야영장 51개소, 넓은 주차장, 운동장, 회의실, 강당, 세미나실, 야외교실, 등산로, 산책로, 잔디광장, 물놀이터, 어린이놀이터, 텃밭길, 어드벤처질러인 모험시설 등이 있다. 숲속의 집과 현대식 콘도 형태의 제암휴양관은 관광객들에게 안락하고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기관의 워크숍, 세미나, 대학생 MT에도 적합한 시설이다. 숲속의 집은 객실마다 편백나무 벽과 편백

나무 침대, 에어컨, 냉장고, TV, 비데, 목화솜 침구 등이 비치돼 있어 진한 편백나무의 향취 속에 휴양과 숙면을 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당일 15:00 ~ 익일 11:00까지이다. 야영장은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공동화장실, 온수샤워장, 음수대, 전기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크기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입실은 12:00부터 가능하고 퇴실은 11:00까지이다. 휴양림에는 정상의 임금바위를 돌아 내려오는 등산로(2시간 30분 소요)와 제암산 정상 을 지나 곰재, 제암산 철쭉 군락지, 사자산, 용추폭포에 이르는 등산로(5시간 소요)가 있다. 특히, 제암산자연휴양림만의 자랑인 무장에 산악 더닝길(데크길)은 제암산 능선을 따

라 이어지는 5.8km의 편백나무 숲길로 계단이 없어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도 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의 모험시설과 숲속 계곡 주변에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제암산자연휴양림의 다양한 생태를 이해하고 배우는 산림휴양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놀이숲'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는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곰썰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최고로 사랑받는 산림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암산자연휴양림의 매력을 방문객들이 고스란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홍보에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명순 기자

##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도시숲 확대에 열섬현상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 기대...감동시대 열어

광양시는 도시외곽 산림(백운산 등)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산림청과 전남도청 관계 공무원, 시의회 안영현 의원, 도심숲가꾸기 소모임 위원장,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바람길숲 분석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1년 12월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 규모로 설계 1년(10억), 공사 3년(23년 90억, '24~'25년 100억)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사업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4월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사업 착공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김현근기자

## 고흥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고흥 한우 스마트 축산단지'가 선정돼 총사업비 33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질병을 유발하는 기존 축사의 문제를 해소하여 깨끗하고 질병이 없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 축산업 구현과 첨단시설·장비와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융복합해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흥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는 고흥만 간척지 21ha(63,000평) 부지에 25농가, 한우 2,500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시설 조성을 목표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친 후 2024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축산시설 기반조성 및 교육·관제센터 조성에 95억원을 투입하고 ▲축사시설 및 최첨단 ICT 기계·장비 도입 등에 24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순천 쌀 김치 절임배추 판로확보에 총력 관내 외식업체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순천시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나선다. 시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 및 계약재배한 순천 쌀과 김치, 절임배추를 관내 외식업체에 제공하는 '외식업체 공급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외식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협동조합이 순천 쌀과 김치, 절임배추를 외식업체에 공급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는 순천 쌀은 2000원(20kg/포 당), 김치(10kg/박스)와 절임배추(20kg/박스 당)는 각각 5000원이다. 이 품목들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협동조합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와

협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업체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을 원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협동조합은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순천 쌀과 김치, 절임배추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유율 및 판로를 확대해 ▲농업인 소득증대 ▲관내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외식업체와 농촌간 상생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낭만포차 제7기 운영자' 18명 최종 선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10명 평가위원 구성...내달 2일부터 1년간 운영

여수시의 대표 관광콘텐츠인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7기 운영자 18명이 최종 결정됐다. 여수시는 지난 4일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1차 서류 합격자 54명과 음식 품평회를 갖고 일반시민 5명, 청년층 7명, 사회적약자 3명, 인근 지역주민 3명으로 최종 18명을 선발했다. 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국 식품·조리 등 관련학과 대학교수 10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대표음식을 요리하고 평가위원들은 요리과정과 완성품에 대한 요리 맛, 창의성, 대중성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현장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발된 제7기 운영자는 시와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음식품평회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맛 좋은 음식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 운영자를 선발했다"며 "여수만의 특색과 희소 가치가 있는 낭만포차가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Hot-Place)로서 명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